

신수이의 한역시조 6수에 대하여

이상원*

|| 차례 ||

- I. 머리말
- II. 거창신씨 가문과 신수이의 생애
- III. 작품 소개와 분석
- IV. 시조사적 의의-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이 글은 신수이(愼守彝, 1688~1768)의 한역시조 6수를 소개하고 이 작품의 시조사적 의의를 고찰한 것이다.

신수이는 18세기 거창에 거주한 도학자이다. 그는 <호탄가(浩歎歌)>(1수), <사생가(死生歌)>(3수), <자경가(自警歌)>(1수), <충신가(忠信歌)>(1수) 등 4편 6수의 시조를 지었는데, 현재 그 원문은 전하지 않고 아들 신의명(愼義明, 1725~1790)이 한역한 것만 문집에 실려 있다. <호탄가>는 성인의 덕성을 본받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유학자들을 비판한 노래다. <사생가>는 부인의 죽음을 제재로 하여 생사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연시조 작품이다. <자경가>는 만년에 얼마 남지 않은 여생 동안에도 흐트러짐 없이 살기를 스스로 다짐하는 노래이며, <충신가>는 언행을 바르게 하기를 포기한 세태를 한탄한 노래다.

신수이의 시조는 18세기 향촌사족 시조 중 경남 지역 작품으로는 처음으로 발굴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시조에서는 지금까지 18세기 향촌사족의 시조에서 별로 찾아볼 수 없었던 개성적 면모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제어 : <사생가>, 신수이, 신의명, <자경가>, <충신가>, 한역시조, 향촌사족 시조, <호탄가>

I. 머리말

이 글은 신수이(愼守彝, 1688~1768)의 한역시조 6수를 소개하고 시조 사적 의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수이의 문집인 『황고집(黃臯集)』¹⁾ 권2 가사(歌辭)에는 <호탄가(浩歎歌)>(1수), <사생가(死生歌)>(3수), <자경가(自警歌)>(1수), <충신가(忠信歌)>(1수) 등 4편 6수의 시조가 5언 6구의 형식으로 한역되어 실려 있다. 작품 수가 6수에 불과하고 원문이 아닌 한역된 형태로 전하고 있기는 하나, 작품의 내용이 18세기 사대부 시조의 일반적 경향에서 다소 벗어난 개성적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검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작품을 소개하고 그것의 의미를 분석한 뒤 시조사적으로 어떤 의의를 갖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거창신씨 가문과 신수이의 생애

신수이는 18세기 경남 거창 지역에서 살았던 노론 낙론계 학자다. 그의 본관은 거창인데, 거창신씨는 원래 중국 송나라 개봉부(開封府) 사람이던 신수(愼修, ?~1101)가 고려 문종 때 사신으로 왔다가 귀화하여 시작된 것

1) 『황고집(黃臯集)』은 현재 규장각, 장서각,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여기서는 규장각본을 저본으로 간행한 『한국문집총간』 속69(한국고전번역원, 2008)를 대상 텍스트로 삼았음을 밝힌다.

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가문은 누대로 거창에 세거지를 마련하고 살아왔으나 그의 10대조인 신이충(愼以衷)이 조선왕조에 적극 참여하고 9대조인 신기(愼幾) 또한 등과출사(登科出仕)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하면서 재경관인(在京官人)으로서의 기반을 굳혀 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8대조인 신후경(愼後庚)이 최덕지(崔德之, 1384~1455)의 사위가 되어 만년에 처향(妻鄉)인 전남 영암으로 이거(移居)함으로써 다른 형제들과 행보를 달리 하게 된다. 그 후 6대조인 신우맹(愼友孟)이 정옥형(鄭玉衡)의 사위가 되어 다시 처향인 거창 황산(黃山)으로 이거함으로써 그의 가문은 이곳을 기반으로 세거하게 되었다.

신수이의 가문에서 신수이의 삶의 행적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5대조인 신권(愼權, 1501~1573)이다. 신권은 자가 언중(彦仲), 호가 요수(樂水)로 훈도(訓導)를 지냈다. 그는 일찍이 “인작은 남에게 달려있고, 천작은 내가 하기에 달린 것인데, 어찌 나를 버리고 남에게서 그것을 구할 수 있단 말인가!(人爵在人, 天爵在我, 安可舍我而求諸人哉!)”²⁾라 하고, 요수정(樂水亭)을 지어 평생 학문과 후진교육에 전념하였다. 신권은 당시 거창 지역의 유력사족이던 은진임씨 임득번(林得蕃)의 딸과 혼인함으로써 거창신씨가 이 지역 유력사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임득번의 장자로 광주목사를 지낸 갈천(葛川) 임훈(林薰, 1500~1584)은 이 지역에서 덕망이 높은 학자였는데, 신권과 임훈은 처남-매부 사이로 나이도 한 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깊은 교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신권의 거창신씨 가문은 임훈의 은진임씨 가문과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신권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후 4대 동안은 특별히 주

2) 이재, <處士愼公墓碣>, 『陶菴先生集』 卷三十五, 『한국문집총간』 195, 민족문화추진회, 1997, p.221.

목할 만한 행적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가문의 성장세가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 그러다가 신권 이후 거창신씨가 다시 발흥하는 기반을 마련한 인물이 바로 신수이다.³⁾

신수이는 자가 군서(君敍), 호가 취한당(就閒堂)으로 1688년 7월 15일 안음(安陰) 상천촌(上川村)⁴⁾에서 태어났다. 10세에 이웃에 사는 처사 유탄도(劉坦道)에게 학문을 배웠는데 그는 동계(桐溪) 정온(鄭蘊, 1569~1641)의 만년 제자 중 한사람이다. 17세에 경주이씨 이광익(李光益)의 딸과 혼인하였다가 22세에 사별하였으며, 이후 25세에 창녕조씨 조한명(曹漢鳴)의 딸과 혼인하였다. 24세에 화천서당(花川書堂)을 짓고 강학하였으며, 29세에 북면(北面) 황산촌(黃山村)⁵⁾으로 이거하였다. 그는 41세에 경상도암행어사李宗성(李宗城, 1682~1759)의 천거를 받는 등 여러 차례 천거를 받았으며, 62세에는 동몽교관(童蒙教官)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응하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구연서원(龜淵書院)⁶⁾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였다. 50세, 53세, 57세 등 세 차례에 걸쳐 용인으로 도암(陶菴) 이재(李緯, 1680~1746)를 찾아뵙고 가르침을 청하였다. 이런 인연으로 그의 가문은 영남의 노론 가문으로 성장하게 된다. 한편 신수이는 이재의 문하를 출입하면서 그로부터 자신의 5대조인 신권의 묘갈을 받았으며, 이재의 도움을 얻어 유척기(兪拓基, 1691~1767)로부터 갈전(碁

3) 이상 신수가 가문의 선대 내력에 대해서는 “정순우·정수환, 『조선 후기 거창(안)의 사족동향과 고문서-은진임씨와 거창신씨를 중심으로-』, 『고문서집성 78-거창 은진임씨·거창신씨 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신시범 역, 『역주 황교선생집』, 선비, 2012.”, “이재, <處士愼公墓碣>, 『陶菴先生集』 卷三十五, 『한국문집총간』 195, 민족문화추진회, 1997, p.221.” 등을 참고하여 간략히 재정리한 것이다.

4) 현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다.

5) 현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다.

6) 구연서원은 신수이의 5대조 신권이 제자를 가르치던 구주서당(龜州書堂) 자리에 1694년 지방유림이 신권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창건한 서원이다.

篆)을 받는 등 위선(爲先)에도 정성을 기울였다. 그 결과일까? 신수이의 아들인 신인명(愼認明, 1723~1782)은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 지평(정5품)을 지냈고, 손자이자 신인명의 아들인 신성진(愼性眞, 1752~1830)은 동부승지(정3품)까지 역임하였다. 신수이는 81세인 1768년 9월 자인현감으로 부임하는 아들 인명을 따라가 지내다가 10월 8일 그곳에서 졸하였다.⁷⁾

이상 신수이의 가문 내력과 신수이의 생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그는 18세기 경남 거창 지역의 전형적인 향촌사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 그의 시조는 조선후기 향촌사족 시조의 일반적 모습을 띠는 것일까? 아니면 그의 개성적인 면모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는 것일까? 이제 그 궁급증을 해소하기 위해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Ⅲ. 작품 소개와 분석

신수이의 문집인 『황고집(黃臯集)』 권2에는 ‘가사(歌辭)’라는 제목 아래 <호탄가(浩歎歌)>(1수), <사생가(死生歌)>(3수), <자경가(自警歌)>(1수), <충신가(忠信歌)>(1수) 등 4편 6수의 시가 실려 있다. 그런데 이 시들은 5언 6구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다 ‘가사(歌辭)’라는 제목 다음에 “본래는 언문으로 기록된 것인데 아들 의명이 한문으로 번역했다(本諺錄, 子義明翻文).”는 주석이 달려 있어, 신수이가 창작한 시조 6수를 아들 신의명(愼義明, 1725~1790)이 한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7) 이상 신수이의 생애에 대해서는 “『황고선생연보』, 필사본, 필자 소장.”, “홍직필, <행장>, 『黃臯集』 卷之八, 『한국문집총간』 속69, 한국고전번역원, 2008, p.362.”, “송래희, <就間堂愼公墓碣銘>, 『錦谷先生文集』 卷之十三, 『한국문집총간』 303, 민족문화추진회, 2003, p.374.” 등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호탄가(浩歎歌)〉

天地大且大	천지는 크고 크고
山川多又多	산천은 많고 많다.
此間億兆民	이 사이 억조민은
何以致和平	무엇으로 화평할까?
要知聖德外	성덕 외 알아야 할 것
他無可爲事	무슨 일이 있으랴?

제목 〈호탄가(浩歎歌)〉는 크게 탄식하는 노래라는 뜻이다. 제목 다음에는 “높은 곳에 올라 지었다(登高作).”는 주석이 달려 있다. 따라서 이 노래는 작자가 높은 산에 올라 무언가를 크게 탄식하며 부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탄식의 내용은 무엇인가? 시조의 초장에 해당하는 첫 두 구에서는 천지와 산천의 크고 많음을 노래했다. 『맹자』의 호연지기(浩然之氣)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중장에 해당하는 3~4구는 우리의 일반적인 예상을 벗어난다. 우리의 예상은 높은 산에 오른 작자가 자신의 호연지거나 옛 성현의 호연지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노래한 것은 세상의 억조창생들이 화평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한 답은 마지막 종장에서 나타나는데, 만백성이 화평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인의 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결국 작자 자신은 성인의 덕을 실천하는 것이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를 모르거나 알고도 실천하지 않아 그것이 한탄스럽다는 것을 노래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개략적인 내용은 파악이 되었으나 성덕(聖德)에 대한 작자의 구체적인 생각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18세기 향촌 도학자의 뻘하고 관념적인 한탄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좀 더 진전된 작품 이해를 위해 다음 글을 보충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위에서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진실로 하늘의 운행을 하늘의 큰 뜻으로 삼아, 안으로는 덕 밝히기를 마치 눈이 흰 것과 같이 하여 스스로 새로워지고, 밖으로는 교화하기를 눈이 베푸는 것과 같이 하여 편벽되지 말아야 한다. 위에서 빛이 밝아 흥하면 아래도 같이 그러해서, 인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치 눈의 번짐과 같고 의를 빛내는 것이 마치 눈의 빛남과 같다. 훈도(薰陶)하고 진작(振作)함이 마치 공기가 일어나고 구름이 운행하듯 하여 덕교(德教)가 크게 전파되는 것은 과연 이 눈이 두텁게 쌓여 두루 윤택하게 하는 것과 같은 즉 똑같이 이 마음을 가진 자라면 그 누군들 흥기하여 스스로 새로워지려 하지 않겠는가? 이전에 험하던 자는 마치 산이 눈의 깨끗한 피부를 덮은 것처럼 되고, 옛날에 더러웠던 자는 마치 물이 눈의 윤기와 맑음을 더한 것처럼 되어 어리석은 자든 나약한 자든, 경박한 사내든 완고한 사내든 감화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예전에 물든 더러운 풍속도 변하여 아주 아름답게 되니 각자가 아버이를 아버지로 섬기고 어른을 어른으로 섬기는 마음이 일어나 집집마다 효도하고 충성하여 모두 즐거움을 즐기고 이로움을 이롭게 하는 생업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위는 편안하고 아래는 잘 따라서 풍속이 저절로 맑고 아름다우니 온 세상이 저절로 화평해질 것이다.⁸⁾

(나) 대략적으로 말하면 심(心)은 진실로 기(氣)에 속하지만 근본은 성(性)과 이(理)를 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심을 말할 때는 반드시 이와기를 합하여 말하였고, 편벽되게 단순히 기만을 가리킨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제 와서 성과 이를 제쳐놓고 편벽되게 기 한편만을 좇아 그것을 분석하는데, 분석은 매우 지나치고 추론은 억측에 이르러 이에 말하기

8) “爲人上者，誠能則天大以天行，內以明德如雪之白而自新，外以推化如雪之施而無偏。以上光明而興下同然，漸以仁如雪之漸，磨以義如雪之磨。薰陶焉振作焉，如氣之翕雲之行，而德教之大布者，果如此雪之積厚而旁洽，則同有是心者，孰不興起而自新？向之險者，如山之蒙其潔革，昔之汙者，如水之沾其澤清，愚也懦也薄夫也，莫不感化。而舊染汙俗，於變休明，各興其親親長長之心而家孝戶忠，皆得其樂樂利利之業。而上安下順，風自清俗自美，四海自謐。” <感雪>，『黃臯集』卷之六，『한국문집총간』 속69， 한국고전번역원， 2008， p.339.

를, “심은 바로 기인데, 선천적으로 타고난 처음부터 기가 이미 같지 않은즉 심 또한 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근본이 원래 정해져 있어 타고난 운수를 바꾸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헛되이 학자가 스스로 성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만두고 그 허물을 기질의 폐해로 돌리는 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략)… 지금 옛 성현들이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한 것을 후학자들에게 힘써 나아가라 하지만 다만 간곡하기만 할 뿐, 후인들 중 믿고 따르는 자는 오히려 적고, 성인은 본래 나면서부터 아는 것이지 배워서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허물을 기질 탓으로 돌리고 포기애 안주하는 자가 많습니다. 지금 이 분수가 정해져 있다는 설이 세상에서 일컫는 달관론에서 나온 것이라면, 무릇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괴연 기질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로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배움을 옳게 여기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심히 두렵사옵니다.⁹⁾

(가)는 33세 되던 1720년(숙종 46년)¹⁰⁾ 정월에 눈이 내린 것을 보고 쓴 <감설>이라는 글이다. 이 글에서 신수이는 위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성군(聖君)이나 성인(聖人)이 덕을 밝혀 이로써 아래를 교화하면 세상이 편안하고 풍속이 아름다워져 백성들이 화평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호탄

9) “大槩言之, 心固屬氣, 而本合性理. 故從古言心, 必合理氣言之, 而未嘗有偏以氣單指者也. 今何必除其性理, 偏從氣一邊析之, 而分之太過, 推之至鑿, 乃曰心是氣也, 稟賦之初, 氣既不齊, 則心亦不齊云. 而判原頭元定不易之分數, 徒增學者自沮希聖之心, 而歸咎氣質之弊哉. …(중략)… 今古聖賢懇懇諄諄勉進後學者, 不啻丁寧, 而後人之信從者猶寡, 以爲聖本生知, 非學可至, 而歸咎氣質, 安於曩棄者衆矣. 今此分定之說, 出於世所稱達觀之論, 則凡世之人, 果皆以氣質爲不須變化者, 而無復肯爲學者矣. 竊以此深懼焉.” <上陶菴李先生書, 別紙>, 『黃臯集』 卷之三, 『한국문집총간』 속69, 한국고전번역원, 2008, pp.274-275.

10) <감설>은 “上之四十有六年春王正月”로 시작하는데 『역주 황고선생집』에서는 이를 영조 46년(1770년)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는 잘못이다. 영조 46년인 1770년은 신수이가 이미 사망한 이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숙종 46년(1720년)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가>에서 성덕(聖德)을 알아 열심히 실천하면 억조창생(億兆蒼生)이 화평해질 수 있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로써 작품에서 성덕을 강조한 것이 작가가 평소애 늘 품어왔던 생각을 표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탄식의 실체다. 그는 왜,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 (나)의 글이다.

(나)는 신수이가 도암 이재에게 보낸 편지에 별지로 동봉한 글이다.¹¹⁾ 이 글은 심성론과 관련된 신수이의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기본적으로 이재가 속한 낙론(洛論)의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지지한다. 낙론의 인물성동론에서는 성(性)과 이(理)가 같다고 보기 때문에 본연지성(本然之性)은 인간과 사물이 같고 단지 기질지성(氣質之性)이 다를 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호론의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에서는 이(理)를 일원(一原)의 이와 분수(分殊)의 이로 구분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성과 이가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일원의 이의 입장에서 보면 인성과 물성이 같지만 분수의 이의 입장에서 보면 인성과 물성은 다르다는 것이다. 이런 인물성동이론은 성범심동이(聖凡心同異)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인성과 물성이 같다고 보는 경우 성인과 범인의 마음도 같다고 보는 반면에,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고 보는 경우 성인과 범인의 마음도 다르다고 본다. 위의 글에서 신수이가 집중적으로 논하고 있는 것은 성범심동이(聖凡心同異)의 문제다. 그는 낙론의 입장에서 성인의 마음과 범인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본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를 부정하고 마음을 오로지 기의 관점에서만 접근하여 성인의 마음과 범인의 마음이 본래부터 다르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고, 문제는 이런 무리들 때문에 배움의 길에 있는 학자들이 성인이 되기 위해 열심히 학문하고 수양하기보다는

11) 『황고선생연보』에 따르면 이 글은 선생 52세인 1739년에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冬上別紙於陶菴先生論心性說.” 『황고선생연보』, 필사본, 필자 소장.

자신들의 부족함을 기질의 탓으로 돌리면서 성인이 되는 길을 너무 쉽게 포기함으로써 학문과 수양을 게을리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신수이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이다.

(나)의 글을 고려한 상태에서 <호탄가>를 다시 읽어보면 이 작품이 단순하게 불특정 세상 사람들의 무지를 한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호탄가>는 도암 이재를 종유(從遊)하면서 공유한 낙론의 심성설에 입각하여,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면서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호론과 그에 편승하여 학문과 수양을 게을리 하는 학자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를 한탄한 노래라 할 수 있다.

<사생가(死生歌)>

世上一夢耳	세상이 꿈이거늘
一夢誰不夢	뉘라서 아니 꾸랴?
晚寢與早寢	늦게 자나 일찍 자나
率是一般寢	자는 건 한가지라.
此古今常理	고금의 상리(常理)이거늘
如何獨自悲	어이 홀로 슬픈가?

我前千百世	내 앞에 천백세요
我後億萬歲	내 뒤에도 억만세라.
人生死亡後	사람이 죽은 후엔
應如未生時	미생시(未生時)와 한가지니
世人莫惡死	세인이 죽음을 싫어 마라.
其奈未生前	미생전(未生前)이 그 어떤가?

人生死亡後	사람이 죽은 후에
魂魄皆離散	혼백은 흩어지나

未知一精靈	모르지, 한 정령이
不泯何處會	어디서 만나질지?
死若見父兄	죽어서 부형을 뵈다면
速死亦至樂	빨리 죽음도 지락(至樂)이리.

<사생가>는 죽음의 문제를 노래한, 3수로 된 연시조다. 전체적으로 죽음에 대해 초연한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슬픔의 정서가 묻어나고 있음이 주목된다.

첫 번째 수는 세상이 한바탕 꿈이라고 시작한다. 흔히 인생사를 일장춘몽이라 하는데 이런 예에 비추어보면 살아있는 시간을 꿈으로 표현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중장으로 넘어가면 혼란스러워진다. “늦게 자나 일찍 자나 자는 건 한가지라”고 했으니 여기 잠은 죽음을 가리킨다고 봐야 한다. 꿈은 잠을 자야 꾸는 것이니 그러면 초장의 꿈도 죽음의 세계를 가리킨다고 봐야 할까? 그렇게 볼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래도 초장의 꿈은 삶의 세계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 따라서 여기에 기초해 중장을 이렇게 고쳐 읽을 수도 있다. “많이 자나 적게 자나 자는 건 한가지라.” 이렇게 보면 작가는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처리하여 첫 번째 작품에서부터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인생은 일장춘몽이고 누구든 언젠가는 다 죽어야 한다. 그것이 만고불변의 이치다. 이쯤 되면 죽음에 대해 모든 것을 다 깨달은 경지에 도달한 듯하다. 그런데 마무리는 우리의 예상을 깨어버린다.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언젠가는 우리 모두 죽어야 한다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홀로 고독한 상태에서 슬픔을 삼키고 있다. 일반적 차원에서 죽음의 문제를 노래한 것이라기보다는 뭔가 죽음과 관련된 특별한 사연이 있어 이 작품을 짓게 되었

음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두 번째 수에서는 다시 개인적 슬픔을 자제하고 죽음의 의미를 탐구한다. 내 앞에도 수없는 세상이 존재했고 또 내 뒤에도 무한한 세월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죽음이란 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규정한다. 그리곤 세상 사람들에게 태어나기 전과 다를 바 없으니 죽음을 너무 싫어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나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세상 사람들을 깨우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모든 걸 다 깨달은 척하면서 죽음의 세계로 떠난 누군가를 위로하고 달래는 듯한 느낌도 배제할 수 없다.

세 번째 수에서는 죽음의 세계에서의 만남을 노래하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흩어져 사라지지만 그 중 혹시 하나의 영혼이라도 사라지지 않고 남게 된다면 어디선가 만날지도 모른다고 기대한다. 종장에선 죽어서 부형을 만날 수 있다면 빨리 죽는 것이 오히려 지락(至樂)이라고까지 말한다. 앞의 두 수에서 말한 것처럼 죽음에 대해 모든 걸 깨닫고 초연해진 상태라면 살아서 맺은 인연을 죽음의 세계에서 다시 만나는 문제에 대해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결국 작가가 죽음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생사의 문제에 대한 본질적 깨달음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살아서 맺은 가까운 인연들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의한 것이 더 커 보인다. 죽어도 크게 여한이 없을 것 같은 만년의 삶에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이다.

예상대로 이 작품은 작가의 만년에 창작된 작품으로 보인다. 앞서 잠깐 밝힌 바와 같이 신수이는 두 부인과 함께 했는데, 그 중 첫 번째 부인인 경주이씨는 혼인한 지 5년 만인 1709년에 24세로 요절했다.¹²⁾ 그래서인지

12) 당시 신수이의 나이는 22세였다. 한편 두 번째 부인인 창녕조씨는 신수이가 죽은 지 6년 뒤인 1774년에 사망했다.

신수이는 이씨에 대한 그리움이 각별했던 것 같다. 처음 장례를 치른 후 두 차례에 걸쳐 개장(改葬)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개장 후 쓴 제문에는 그의 절절한 그리움이 잘 드러나 있다. 그 중 위의 작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 일부를 인용해 보기로 한다.

아, 슬프도다! 나고 죽는 것은 하늘의 도리이니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 누가 오랜 삶을 누렸던가? 나의 혈떡거리는 숨을 헤아려보건대 지금은 비록 죽지 않았으나 남은 날이 그 얼마이라? 날이 저물면 똑같이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장수한 팽조(彭祖)나 어려서 죽은 아이나 다 같이 죽었으니, 그대 어찌 요절한 것을 원망하겠으며 내 어찌 늦은 것을 자랑하겠는가? 구천에서 후시 육친(六親)을 서로 만날 도리가 있다면 마침내 이별이 적고 만남이 많음을 알겠으나 감감하고 아득하여 진실로 인간 세상에서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라네. 아, 슬프도다! 정신이 혼미하여 말이 잘 나오지 않음에 간략하게 이만 줄이니 영혼이 느낌이 있다면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정을 알 것이로다. 슬픈 마음이 가슴 속에 가득차서 한 잔 술로 삼가 고하노라.¹³⁾

이 제문은 “아, 슬프도다! 그대와 이별한 지 육십 년이라.(嗚呼悲夫! 與君相別, 六十年矣.)”로 시작하고 있고 중간에 “올해 나이가 팔십 하나(今年八十有一)”라는 표현이 있어, 신수이가 죽은 해인 1768년에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인 내용이나 정서가 <사생가>와 매우 비슷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생가>는 어린 나이에 만나 짧은 사랑을 나눈 뒤 사별한 첫 번째 부인인 경주이씨의 묘를 선영(先塋) 아래로 개장한 후 생사에 대

13) 嗚呼悲夫! 有生有死, 天道之常, 往古來今, 孰執長年? 顧我殘喘, 今雖不泯, 餘日復幾? 大暮同寐, 彭殤齊歸, 君何怨早, 我何矜晚? 泉臺之下, 倘有六親相見之理, 則終知別小會多, 而冥然漠然, 固非人世之所能知也. 嗚呼悲夫! 神昏語澁, 略陳萬一, 靈其有感, 而聽我辭知我情也耶. 滿腔悲懷, 一盃謹告. <祭亡室贈淑夫人李氏文>, 『黃臯集』 卷之五, 『한국문집총간』 속69, 한국고전번역원, 2008, p.330.

한 느낌을 담아 노래한 작품으로 이해된다. 여기에는 부인 이씨에 대한 신수이의 애뜻한 마음과 함께 곧 죽음을 앞둔 그의 초연한 자세가 잘 드러나 있다.

<자경가(自警歌)>

賦命七十餘	칠십 여 인생 동안
汨沒形役中	형역(形役)에 골몰했네.
點檢吾平生	내 평생 점검하니
俯仰多愧懼	많이도 부끄러워라.
今後須克己	금후엔 욕심을 버리고
奉若贖舊罪	묵은 죄를 씻으리.

『황고선생연보』에 따르면 갑신년(1764년, 선생77세) 겨울에 자경문(自警文)을 지어 자리 옆에 걸어둔¹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문집을 보라(見文集)”는 주석을 달아 놓았다. 이 주석은 문집에 실려 있는 <자경가>를 참고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작품은 신수이의 나이 77세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성찰하고 여생 동안 경계해야 할 것을 다짐한 노래라 할 수 있다.

신수이는 자신이 성취한 도학 공부를 바탕으로 화천서당과 구연서원을 중심으로 평생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몰두한 인물이다. 이로 인해 주변 일대에 명성이 자자해짐으로써 그는 여러 차례 관료들의 포상 천거를 받았다. 41세(1728년)에는 경상도암행어사 이종성(李宗城, 1682~1759)의 천거를 받았고, 50세(1737년)에는 경상감사 민응수(閔應洙, 1684~1750)의 천거를 받았으며,¹⁵⁾ 61세(1748년)에는 경상감사 남태량(南泰良,

14) “冬作自警文揭座隅.” 『황고선생연보』, 필사본, 필자 소장.

15) 『영조실록』 43권, 영조 13년 3월 3일 신묘 4번째 기사 참조.

1695~1752)과 예조판서 이주진(李周鎭, 1692~1749)의 천거를 연이어 받았다.¹⁶⁾ 이들의 천거 사유를 보면 학문과 교육, 그리고 인품과 행실에 뛰어나다는 점을 하나같이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벼슬에 대한 추천도 여러 차례 받았다. 62세에는 동몽교관(童蒙教官)에 임명되었고, 그 해 8월에는 익위사 시직(翊衛司侍直), 11월에는 만녕전 참봉(萬寧殿參奉)으로 천거되었다. 또 64세에 다시 익위사 시직(翊衛司侍直)으로 천거되었고, 80세에는 아들 인명(認明)이 임금을 모시는 시종관(승정원 주서)이 된 덕택에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오르고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여러 차례의 천거와 관직 임명에도 불구하고 모두 사양하고 응하지 않았다.

이렇듯 그는 세상의 부귀공명을 탐한 적이 없었지만 <자경가>에서는 형역에 골몰했다고 하여 물질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음을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 중장에서는 이렇게 평생을 살아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부끄러운 것이 너무도 많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마지막 중장에서는 이후의 남은 인생에서는 조금의 욕심조차 다 버리고 그 동안 쌓은 묵은 죄를 씻는 데 온 정성을 바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더 철저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도학자의 기품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16) 이는 대표적인 것만 기록한 것일 뿐 이것이 다는 아닌 듯하다. 62세(1749년)에 동몽교관에 임명된 사유를 『황고선생연보』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경자년(1720년, 33세) 이후로부터 수령과 방백이 선생의 훌륭한 명성을 흠모하여 본관의 천보와 감사의 계달이 그치지 않아 10여 차례에 이르렀다. 예조에서 거듭 아뢴 것과 암행어사가 별도로 침부한 것 또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무진년(1748년, 61세) 겨울 감사가 또 특별히 천거하자 올해 이런 명이 있게 된 것이다.(自庚子以後, 守令及方伯, 慕先生盛名, 本官之薦報道臣之啓達, 不止十數. 禮曹覆啓繡衣別單者, 亦不知幾次. 戊辰冬道伯又特薦, 是年有是命.)” 『황고선생연보』, 필사본, 필자 소장.

<충신가(忠信歌)>

言語宜忠信	말은 참되고
行實宜篤敬	행실은 발라야 한다.
忠信與篤敬	참됨과 바름은
惣是好於己	자기에게 좋은데도
奈何世上人	어찌타 세상 사람들은
自暴自棄爲	자포자기 하는가?

이 노래는 『논어』 「위령공편」에 나오는 “言忠信, 行篤敬”의 구절¹⁷⁾을 차용하여 작품화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호탄가>와 <자경가>를 섞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말과 행실을 참되고 바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초장의 내용은 항상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경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중장과 종장에서 이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인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스스로 포기해 버린다고 한탄하는 내용은 <호탄가>와 훨씬 닮아 있다. 시조의 무게중심이 중장에 있다는 걸 감안하면 언충신(言忠信)과 행독경(行篤敬)을 열심히 실천하지 않고 쉽게 포기해 버리는 세태를 한탄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겠지만 자기 스스로의 언행을 항상 조심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많이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노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일화가 『황고선생연보』에 전하고 있다.

임종일 오시에 <충효신독경가> 한 곡을 불렀는데 이 노래는 선생이 평일에 스스로 지은 것이다. 노래가 끝나자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것은 사람들마다 자기에게 스스로 좋은 것인데도 세상 사람들은 이를 즐겨 행하지 않으니

17) “말이 진실되고 믿음직스러우며, 행실이 도탑고 공손하면 비록 오랑캐의 나라라 하더라도 쓰일 것이다.(言忠信, 行篤敬, 雖蠻貊之邦, 行矣.)”

심히 애석해 할 만하다.” 하였다.¹⁸⁾

“평일에 스스로 지은 것”이라고만 되어 있어 정확히 언제 창작한 작품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입증하는 날까지 불렀다는 것을 보면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

IV. 시조사적 의의-결론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신수이의 한역시조 4편 6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비록 한역된 형태로 전하기는 하나 원작이 시조인 것이 분명하므로 여기서는 이 작품들의 시조사적 의의에 대해 간단히 고찰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신수이의 시조는 18세기 향촌사족 시조 중 경남지역 작품으로는 처음으로 발굴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8세기는 흔히 말하는 담당층의 중심 이동 현상이 본격화함으로써 사대부 시조보다는 중인가객층의 시조가 훨씬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대부 시조 내부에서는 경향분기(京鄕分岐)가 가속화한 가운데 음악문화의 중심이 서울로 집중됨으로써 경화사족의 시조가 향촌사족의 시조보다 우위를 점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리하여 18세기 향촌사족의 시조는 양적·질적 측면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면 18세기 향촌사족의 시조는 시조사적으로 무시해도 괜찮은 것인가?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주지하다시피 18세기 향촌사족의 시조 중

18) “易簣日午時，歌忠孝信篤敬歌一闕，歌乃先生平日所自製者也。歌罷歎曰，此乃人之自好於己者，而世人不肯爲之，甚可惜也。” 『황고선생문집』, 필사본, 필자 소장.

에는 위백규의 <농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중인가객층의 시조에서도, 경화사족의 시조에서도 볼 수 없는, 18세기 향촌사족에게서만 확인할 수 있는 개성적이면서도 역사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작품들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18세기 향촌사족 시조 작가로 보고된 성과를 종합해 보면 경남 지역 출신의 작가는 한 명도 없다. 18세기 향촌사족 시조 작가에 대한 범주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논자에 따라 꽤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그 동안 각 논문들에서 18세기 향촌사족 시조 작가로 논의된 인물을 모두 합치면 총 12명이다. 안서우(安瑞羽, 1664~1735), 권구(權渠, 1672~1749), 박순우(朴淳愚, 1686~1759), 안창후(安昌後, 1687~1771), 신지(申墀, 1706~1780), 김도익(金道翼, 1710~1784), 채헌(蔡憲, 1715~1795), 양주익(梁周翊, 1722~1802), 위백규(魏伯珪, 1727~1798), 황운석(黃胤錫, 1729~1791), 남극엽(南極曄, 1736~1804), 채시옥(蔡蓍玉, 1748~1803) 등이 그들이다. 이들의 거주지를 보면 경북이 5명,¹⁹⁾ 전남이 4명,²⁰⁾ 전북이 3명²¹⁾이고 경남은 없다.

다음으로 신수이의 시조에는 지금까지 18세기 향촌사족의 시조에서 별로 찾아볼 수 없었던 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신수이가 18세기 향촌사족 시조 작가 중 경남 지역에 거주한 인물로는 최초라는 위의 사실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것으로 인해 18세기 향촌사족 시조의 다양한 면모를 좀 더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의 시조는 4편이 모두 제각각의 개성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 중에서 <호탄가>, <자경가>, <충신가>는 도학자로서의 신수이의

19) 권구(안동), 신지(문경), 김도익(안동), 채헌(문경), 채시옥(문경).

20) 박순우(영암), 안창후(보성), 위백규(장흥), 남극엽(담양).

21) 안서우(무주), 양주익(남원), 황운석(고창).

면모를 잘 드러내주는 작품들이다. 이들 작품도 여타의 18세기 향족사족 시조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성격과 차별화된 상태로 존재하지만, 특히 주목되는 것은 <사생가>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째 부인인 경주이씨의 묘를 개장하고 나서 지은 것으로,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생사관과 관련된 작가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그런데 시조사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시조 작가가 아내의 죽음과 관련하여 작품을 남기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糟糠 三十年에 즐거운 일 업건마는
 不平辭色을 날 아니 뵈엿더니
 무리해 늘근 날 버리고 호자 가랴 흐시는고²²⁾

白髮의 少室 보니 琴瑟舊情 더욱 싫다
 時時로 싱각하면 二十九年 어제던듯
 아마도 새오 네오 天數 | 오니 설움 즐김 무엇하리.²³⁾

위의 것은 17세기 남원의 향촌사족이었던 정훈(鄭勳, 1563~1640)의 작품이다. 여기에는 삼십 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즐거운 일이 없었음에도 불평하는 말이나 기색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모든 것을 감내해 준 아내에 대한 고마움,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고 먼저 떠남으로써 더 이상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안타까움의 정서가 잘 드러나 있다.²⁴⁾ 아래의 것은 18세기 고창의 향촌사족인 황윤석의 작품이다. 늙은 나이에 소실(少室)을 보게 되

22) 『水南放翁遺稿』.

23) 『頤齋亂藁』.

24) 이에 대해서는 “이상원, 「사족층의 분화와 정훈의 시가」, 『Journal of Korean Culture』 2, 한국어문학회국립국립미술포럼, 2001, p.295.” 참조.

니 이전 아내와 함께 했던 정이 더욱 서럽게 다가온다고 했다. 황윤석은 20세(1748년)에 동갑인 창원정씨(昌原丁氏)와 혼인하여 48세(1776년)에 사별했다.²⁵⁾ 중장의 29년은 이 정씨와 보냈던 기간을 가리킨다. 그는 손에 잡힐 듯 어제 일처럼 느껴지는 아내와의 정을 수시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씨는 이미 떠났고 현재는 소실이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다. 이에 중장에서는 현실로 돌아와서 새것(소실)이나 옛것(아내)이나 다 하늘이 정한 것이니 서러워한들, 또 즐거워한들 무엇하겠느냐고 말한다. 모든 것을 천명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아내의 죽음과 관련된 시조는 위의 두 작가의 작품이 전부다. 이런 점에서 신수이의 <사생가>는 아내의 죽음을 제재로 하고 있다는 자체로 주목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더욱 주목 받아야 할 것은 <사생가>가 위의 두 작가와 달리 3수의 연시조로 구성하여 아내의 죽음에 따른 개인적 차원의 슬픔이나 안타까움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진지하고 깊이 있는 철학적 성찰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신수이의 시조는 전반적으로 개성적인 면모가 두드러지지만 18세기 향촌사족 시조 작가 중 유독 앞서 살펴본 황윤석과 겹치는 지점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위에서 본 것처럼 아내의 죽음을 제재로 한 작품을 지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음의 작품에서도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虛靈호은 이 내 本心 純善호은 이 내 本性
 本心은 聖凡이 혼가지오 本性은 人物이 혼가지니
 엇디타 本心性 汨失호여 至愚極賤 되올소냐.

25) <記亡室生卒>, 『頤齋遺藁』 卷之二十二, 『한국문집총간』 246, 민족문화추진회, 2000, p.486.

앞서 <호탄가>에서 다루고 있는 탄식의 내용과 관련하여 성범심동이(聖凡心同異)의 문제에 대한 노론 내 호론과 낙론의 대립이 개재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신수이는 성인과 범인의 마음이 같다고 보는 입장에서 비록 범인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수양하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성인과 범인의 마음이 태어나면서부터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성인이 될 수 없다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노력도 해보지 않고 서둘러 포기해 버린다고 하면서 이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위 황윤석의 작품은 이런 신수이의 한탄을 마치 듣기라도 한 것처럼 그가 원하는 바를 실천하고 있는 지식인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황윤석은 자신의 본심과 본성이 잡됨이 전혀 없이 순전한 상태라고 말한다. 이는 본심이나 본성의 입장에서 보면 성인과 다를 바가 없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장에서 성범심동(聖凡心同)과 인물성동(人物性同)을 강조하여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중장에서는 “어찌 초장에서 말한 본심과 본성을 상실하여 지극히 어리석고 천한 존재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여, 결국 본래의 순전한 본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수양하여 성인의 경지에 오르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렇듯 신수이와 황윤석의 뜻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그들이 노론 낙론의 입장에서 있었던 학자들이라는 공통점 때문이다. 신수이가 도암 이재를 사사하여 낙론의 입장에 선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본 바 있다. 그런데 황윤석은 이 이재의 제자인 김원행(金元行, 1702~1772)의 문인이다.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의 손자이자 이재의 문인인 김원행은 당대 낙론을 대표하는 학자였다. 황윤석은 초기에는 김원행뿐만 아니라 호론의 중심인물인 윤봉구(尹鳳九, 1683~1767)에게도 배움을 청하는 등 개방적 자세를 취하였지만 본격적으로 김원행의 문하에 출입하면서부터는 낙론의 입장을 굳건히 하였다.²⁶⁾ 호락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던 18세기에 신수이와 황윤석은 낙론의 입장에서 학문 수양과 교육

에 힘쓴 향촌의 대표적인 학자였다. 바로 이런 공통점이 두 사람 시조의 유사성을 낳은 요인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각각 경남 거창과 전북 고창이라는 다른 지역에서 살았고 출처에 임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두 작가를 본격적으로 대비하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논어』 『위령공편』.

송래희, <就閒堂愼公墓碣銘>, 『錦谷先生文集』 卷之十三, 『한국문집총간』 303, 민족문화추진회, 2003, p.374.

『水南放翁遺稿』.

신시범 역, 『역주 황고선생집』, 선비, 2012.

『영조실록』 43권, 영조 13년 3월 3일 신묘 4번째 기사.

이재, <處士愼公墓碣>, 『陶菴先生集』 卷三十五, 『한국문집총간』 195, 민족문화추진회, 1997, p.221.

『頤齋亂藁』.

『頤齋遺藁』 卷之二十二, 『한국문집총간』 246, 민족문화추진회, 2000, p.486.

『황고선생연보』, 필사본, 필자 소장.

『황고집(黃臯集)』, 『한국문집총간』 속69, 한국고전번역원, 2008.

2. 논문 및 단행본

김명순, 『시조 한역 자료의 현황과 그 성격』, 『시조학논총』 제30집, 한국시조학회, 2009.

남정희, 『18세기 사대부 시조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4.

26) 이에 대해서는 “이천승, 『이재 황윤석의 洛學 계승과 호남에 대한 자의식』, 『동양철학연구』 63, 동양철학연구회, 2010.” 참조.

- 설인경, 「18세기 향촌사족의 시조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2010.
- 이상봉, 「황윤석 한시에 나타난 가족애의 양상-〈월주가〉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45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15, pp.387-424.
- 이상원, 「사족층의 분화와 정훈의 시가」, 『Journal of Korean Culture』 2, 한국어문학 국제학술포럼, 2001, p.295.
- 이천승, 「이재 황윤석의 洛學 계승과 호남에 대한 자의식」, 『동양철학연구』 63, 동양 철학연구회, 2010, pp.189-214.
- 임화신, 「〈목주잡가〉의 창작배경과 시적 인식」,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3.
- 전재강, 「황윤석 시조의 교술적 성격과 작가 의식」, 『시조학논총』 제19집, 한국시조학회, 2003.
- 정소연, 「황윤석의 <목주잡가>에 나타난 시 지향성의 시조사적 조명-18세기 시조의 시 지향성 발견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2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4, pp.127-158.
- 정순우 · 정수환, 「조선후기 거창(안의)의 사족동향과 고문서-은진임씨와 거창신씨를 중심으로-」, 『고문서집성 78-거창 은진임씨 · 거창신씨 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정홍모, 『조선후기 사대부 시조의 세계인식』, 월인, 2001.
- 조태흠, 「18세기 시조의 존재 양상과 그 이해의 시각」, 『한국문학논총』 제25집, 한국문학회, 1999, pp.223-249.

Abstract

A Study on Six Sijos of Shin Su-i Translated into Chinese

Lee, Sang-Won

This study set out to introduce six Sijos of Shin Su-i(1688~1768) translated into Chinese and investigate their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Sijos.

Shin was a moralist that lived in Geochang in the 18th century. He created four volumes and six pieces of Sijo including *Hotanga*(one piece), *Sasaengga*(three pieces), *Jagyeongga*(one piece), and *Chungsinga*(one piece). Their original scripts are not found today, but there are their translations into Chinese in the collection of his works published by his Son Shin Ui-myeong(1725~1790). In *Hotanga*, the poet criticized Confucian scholars that were not working hard to emulate the saints and their virtue. His *Sasaengga* is a Sijo series about his serious contemplation over the matter of life and death after his wife passed away. In *Jagyeongga*, he was determined to continue to live without losing his direction in the remaining days of his old age. In *Chungsinga*, he lamented over people that gave up on the right word and action.

Shin's Sijos claim huge significance as the first discovered Sijos written by a member of local prestigious family in the country of Gyeongnam in the 18th century. Furthermore, his Sijos are worth noticing in that they contain many characteristic aspects rarely found in the works of members of prestigious family in the country in the 18th century.

Key Word : *Chungsinga*, Geochang, *Hotanga*, *Jagyeongga*, *Sasaengga*, Shin Su-i

이상원

소속 :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자우편 : sanje2@hanmail.net

이 논문은 2016년 2월 26일 투고되어
2016년 4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6년 4월 16일 게재 확정됨.